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당도 가게 돼

모방력으로 하나님을 점령한 마귀

사람을 흠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로 짝이 맞아야 하나님의 말이지 짝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짝을 맞춰서 찾아보고 짝이 없는 말은 마귀 소리니까 읽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성경에 쓰여 있기만 하면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쓰여 있지만 그것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은 흠으로는 사람의 눈알을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의 몸도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의 뼈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은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에덴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던 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영원전서부터 존재했으며 6000년 전에 이 지상에 에덴동산을 건설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땅위에는 모방력이 있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고,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고 에덴동산을 파괴하기 위해 두 하나님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에 마귀가 들려 있는 술객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죠? 이것은 뱀 말하느냐 하면 마귀는 모방력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은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마귀 들린 술객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귀가 모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해와 앞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하고 나타나니까 아담 하나님

과 해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게 되니, 그 눈을 통해서 마귀의 영이 아담과 해와 속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해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이 창세기서 1장 27절에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를 보이셔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에덴동산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쓰여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인 고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옛날에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 고로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서 에덴동산에서 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니,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예수라는 자는 사람들에게 자기만 믿으면 천당 가고 자기만 믿으면 안 죽고 영생 얻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가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한 고로 예수의 말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여기서 있는 이 사람도 예수의 말만 지



구세주 조희성님

키면 죽지 않고 영생 얻는 줄 알고 결사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쓴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마음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몸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아서 이걸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으면 이미 벌써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했을 것이다.”라고 예수가 말한 것으로 보아 예수는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으로 임태되지도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태되었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지,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지는 않았을 거지요? 왜 그러나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신과 마귀 신, 이렇게 두 가지 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은 생명의 신이요 영생의 신이지만, 마귀 신은 사망의 신이요 고통의 신인 것입니다. 마귀 신의 모방력으로 초창기에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점령함으로써 말미암아 에덴동산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

라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은 에덴동산 하늘나라가 무너졌다는 말인데 소사(素砂)에서 다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격암유록에도 ‘시종간야(始終良也) 소사지(素砂地) 즉 시작도 소사, 끝맺음도 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고, 찬송가에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하는 찬송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소사에서 흐른다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 가사 말씀이나 다 영의 말씀이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라는 가사에서 사막이라는 건 영적 사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사(素砂)라고 하는 것이 흰 소(素) 자에 모래(砂)자인 고로 흰 모래라는 거지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흰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퍼진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으로 보아 흰 모래와 같이 이루어진 하늘의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사막에 물 흐를 때’라는 말씀은 소사에서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인데, 생명수는 하늘나라의 물을 말하는 거지요? 세상 물을 먹어가지고 영생할 수 있어

요? 하늘나라의 생명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시록에는 “생명나무 사이로 생명수가 흐른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생명나무는 사람을 뜻하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때에 영생이 되는 고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전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소사는 사람들이 모래알과 같이 모여드는 곳이 소사인데, 이 세상 만민들이 다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영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때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는 고로 그 생수를 마시면 사람들이 전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당도 가는 것입니다. 천당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지 사람 집이 아닌 고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천당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사람 자체로 천당에 간다고 한다면 비성경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을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성경말씀은 더하든지 감하든지 하지 말라고 한 고로 성경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라야 하나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세주라야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구세주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사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되는 방법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서 사람의 탈을 벗기 위해 어떤 연단의 과정을 밟았느냐 하면, 처음에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에

서 과거를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갔고, 그다음엔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는 고로 가족을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갔고, 그다음에는 나라는 자존심이 움직이면 자존심 음란죄라고 하는고로 나를 짓기에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려라.”라고 했죠? 한 번만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항상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마귀세끼요, 선악과요, 선악과가 마귀요, 마귀가 죄인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마귀세끼라고 쓰여 있는데, 마귀 좋은 마귀세끼라는 말이요? 마귀세끼는 마귀요? 그래서 죄가 마귀인 것입니다.

죄가 마귀라는 것을 기독교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아담과 해와가 먹었다는 그 선악과가 마귀의 영인데, 마귀의 영이 아담과 해와의 핏속에 있어 아담과 해와의 나라는 주체 의식이 마귀가 되어 있는 고로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 전부 다 마귀가 나라는 주체 의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왜곡해서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들의 피로 사람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대대손손이 조상들의 피로 만들어져 나온 사람들인 고로 우리가 아담과 해와를 닮았어요, 아담과 해와를 안 닮았어요? 아담과 해와를 닮았어요? 너는 어쩌면 네 애비만 닮았냐? 하는 소리 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오늘날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인 고로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씀이 쓰여 있고, 불경에는 무이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말씀이 쓰여 있고, 유교에는 나를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완성자가 나와서 나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25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은 수메르인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경험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서 이집트 문명을 경험한다. 야곱 후손에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횡단하여 모세의 장인이 살고 있는 미디안 광야로 이주한다. 이미 미디안에서 40년간 처가살이를 경험한 바 있는 모세는 애굽에서 구출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 번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아라비아 사막 문화를 경험한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부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부족이 바다민족으로 불리우는 블레셋과 대치함으로써 선박 건조 능력과 항해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단지파 기업의 땅으로 1 아일랜드 고대사에는 기원전 1500년경에 Tuatha de Danaans(단지파)라고 하는 강인한 민족이 멀리서 배를 타고 이곳(아일랜드 남부)에 도착하여 정

《9장 사사시대》 3절: 가나안 입성 후 단지파 행적

배정받은 음바 항구에서 단지파 백성들은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었고, 청동기 시대에 크레타섬의 크노소스를 중심으로 번창한 에게해 문명(미노아 문명)을 접촉할 수 있었다.

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 (Dan, Don, Dun) 등으로 시작하는 지명은 단 지파의 후예들이 개척한 곳이다. 「이스라엘의 개척자, 단DAN」(저자: Col. J. C. Gawler)을 보면, 단지파 일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 음바(Yaffo)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북아일랜드까지 진출하였으며(사사기 5:17), 거기에서 훗날 덴마크까지 확대되었는데 덴마크인은 그들의 조상 단(DAN)의 이름을 따서 나라를 ‘덴 마르크(Dan-mark)라고 명명하였다. ‘덴 마르크(Dan-mark)의 마르크(mark)는 히브리어로 ‘마콘’이며, 창세기 15장 17절에는 ‘여호와와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을 일컬어 히브리어로 ‘마콘’이라고 기록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에 입성한 단지파는 단지파의 장수 삼손을 잃고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동(東)으로 이동하여 한반도로 향하지만, 그보다 150년 전에 단지파의 일부는 음바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3천 4백년 전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약 340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단지파 민족은 2백년간 블레셋과 대치하다가 단지파의 마지막 장수 삼손을 잃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따라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출발하던 시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3천 2백년 전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4대 문명(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브라함 때 경험했고, 이집트 문명은 야곱 때 경험했다. 그다음에 야곱(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을 경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선민 중의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지중해 연안의 에게 문명을 접촉한 단지파 민족만이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단지파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혈

문산 남쪽의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여 단성읍을 세웠다. 그리하여 단지파는 혈문산 북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탄나 왕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단지파가 미탄나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인더스 문명을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미탄나 문화는 지배층에 의해서 인도 아리아인의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의 대홍수에 의한 쇠퇴와 아리아인의 침입으로 멸망되었고 인도 아리아인에 의해서 ‘브라만’을 사제로 하는 카스트제도과 같은 계급체계가 구축된 사회를 열었다. 단지파 민족이 소라 성읍과 단성읍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이동했는데,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의 모술과 아르빌을 거치고, 이란의 북서쪽을 경유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카스피해를 건넜다. 10만에 가까운 인원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은 단지파가 강력한 해상 세력을 갖추었기에 가능했다.



배정받은 음바 항구에서 단지파 백성들은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었고, 청동기 시대에 크레타섬의 크노소스를 중심으로 번창한 에게해 문명(미노아 문명)을 접촉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천 4백년 전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약 340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단지파 민족은 2백년간 블레셋과 대치하다가 단지파의 마지막 장수 삼손을 잃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따라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출발하던 시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3천 2백년 전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4대 문명(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브라함 때 경험했고, 이집트 문명은 야곱 때 경험했다. 그다음에 야곱(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을 경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선민 중의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지중해 연안의 에게 문명을 접촉한 단지파 민족만이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단지파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혈

계속해서 동진한 단지파 민족은 알타이 산맥까지 와서 그곳에서 100여 년간을 우거하면서 중국 서북부로 내려간 일부 단지파 부족이 주(周)나라를 세우는 지배 계층이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상나라를 정벌·병합하는 과정에서 황하 문명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적자(嫡子) 혈통을 이어받은 아

브라함의 증손자 단군 할아버지에서 시작된 단지파 민족은 세계 4대 문명을 경험한 DNA유전자를 보유한 채 몽고,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 유역에 지배 계층이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상나라를 정벌·병합하는 과정에서 황하 문명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적자(嫡子) 혈통을 이어받은 아